

비일관적인 행위자에 대한 사회-도덕적 평가*

차 여 명¹⁾

송 현 주²⁾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비일관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 대한 사회-도덕적 평가 시 통계적 정보가 사용되는가를 알아보았다. 세 개의 연구에 걸쳐 108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연구 1에서 참가자들은 비일관적이지만 도움 행동이 우세한 행위자와 비일관적이지만 도움을 주지 않는 행동이 우세한 행위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후 행위자의 도덕성과 행위자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를 7점 척도로 평가했다. 반복측정 분산분석 분석 결과, 도움 행동이 우세한 행위자가 더 도덕적이라 평가되고 선호됐다. 연구 2는 일관적으로 친사회적인 또는 반사회적인 행위자와 비일관적으로 친사회적인 또는 반사회적인 행위자를 비교함으로써 가장 전형적인 행동 유형이 아닌 통계적 정보를 바탕으로 행위자의 사회도덕성이 평가됨을 밝혔다. 연구 3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행위의 수(2대 1과 6대 3)와는 무관하게 친사회 행동이 우세한 행위자가 더 도덕적이라 평가되고 선호됨을 밝혀, 비일관적인 친사회적 행위자에 대한 평가 시 행위의 빈도 보다 비율 정보가 우선시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비일관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 대한 사회-도덕적 평가 시 통계적 정보가 사용됨을 보여준다.

주요어 : 통계적 정보, 사회 도덕적 평가, 비일관성

* 본 논문은 차여명의 석사학위논문(2021)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본 논문은 The 17th Conference of the Japanese Society of Cognitive Psychology에서 발표한 포스터 논문을 확장시킨 것임.

1)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2) 교신저자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정교수 (E-mail: hsong@yonsei.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타인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그 타인의 성향을 판단하고 또 그 타인에 대한 선호를 형성한다(Steckler, Woo, & Hamlin, 2017). 이러한 사회적 평가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이웃에게 음식을 잘 나누어주는 A와 이웃의 음식을 훔치는 B가 있다. B보다 A를 더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은 자원 획득 가능성을 높여주어 결국 개인의 생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친사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위자를 구별하는 것은 사회 적응을 위한 필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친사회적 또는 반사회적인 행위자를 구별하고 평가하는 능력은 생후 초기부터 나타나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박채린, 송현주, 2019; Fawcett & Liskowski, 2012; Hamlin, 2013a, 2013b; Hamlin & Wynn, 2011, 2012; Hamlin, Wynn, & Bloom, 2007, 2010; Hinten, Labuschagne, Boden, & Scarf, 2018; Kuhlmeier, Wynn, & Bloom, 2003; Vaporova & Zmyj, 2020). 예를 들어, 인형극에서 주인공 인형이 상자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형(친사회적 행위자)과 상자를 열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인형(반사회적 행위자)이 나타날 때, 8개월 영아와 성인 모두 도움을 주는 인형을 선호하는 행동(예, 영아들은 선호하는 인형을 향해 손을 뻗고, 성인들은 선호하는 행위자를 종이에 적는다)을 보이며(Hamlin, 2013a), 제 3자도 돕는 행위

자를 선호할 것이라 기대한다(Hamlin et al., 2007; Kuhlmeier et al., 2003). 더 나아가 성인은 도움을 주는 행위자를 선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착하다(nicer)고 평가한다(Hamlin, 2013b).

타인의 도덕적 평가의 경우 행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행동의 기저에 있는 의도 또한 고려된다(이영은, 송현주, 2014; Hamlin, 2013b; Lee, Yun, Kim, & Song, 2015; Moran et al., 2011). 예를 들어, 주인공이 ‘설탕’이라고 적힌 통에 든 독약을 설탕으로 잘 못 알고 친구의 커피에 타 친구가 사망하는 시나리오(우연적 위해 시나리오)와 주인공이 ‘독약’이라고 적힌 통에 든 설탕을 독약이라 생각하고 친구의 커피에 댔으나 친구가 멀쩡한 시나리오(시도된 위해 시나리오)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우연적 위해보다 시도된 위해 시나리오의 주인공을 도덕적으로 더 나쁘게 평가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사람이 일관적으로 반사회적인 행위자보다 일관적으로 친사회적인 행위자를 더 선호하며 더 도덕적이라 평가함을 알려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람이 항상 일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 행위의 대상(예, 가족, 친구, 모르는 사람), 상황(예,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 불경기, 호황기), 기분(예, 좋음, 나쁨, 슬픔) 등에 따라 친사회적 또는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종종 관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착한 사람’ 또는 ‘항상 나쁜 사람’은 없으며, 오히려 자주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 그리고 그 반대로 빈번하게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적절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일관적으로 친사회적 또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까?

관련하여 Steckler, Woo와 Hamlin(2017)은 비일관적인 행동을 보이는 행위자들에 대해 영아들이 어떠한 사회-도덕적 평가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영아들은 비일관적인 도둑 및 방해 행동을 보이는 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사회-도덕적 평가를 하지 못하였다. Steckler와 동료들의 연구(2017)가 비일관적인 친사회적 행위자의 도덕적 평가와 관련하여 진행된 유일한 연구이기 때문에 비일관성이 있을 때 타인에 대한 사회-도덕적 평가를 보류하는 것이 단순히 영아의 미숙한 사회인지 능력 때문인지, 아니면 생애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인지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한계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령대, 특히 사회-인지적으로 성숙한 성인을 대상으로 비일관적인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 어떠한 도덕적 평가 및 선호도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람들은 비일관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의 사회도덕성을 어떠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할까? 비일관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Heider, 1958)에 따르면 사람은 이전에 확립한 사회적 인상(예, 수더분하다)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예, 까다롭다)를 발견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불편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비일관적인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초두 효과(Anderson, 1965a; Asch, 1946), 최신효과(Fang, Van Kleef, & Sauter, 2018; Hareli, David, & Hess, 2016), 일관적이지 않은 정보를 단순히

무시해버리는 것(Erber & Fiske, 1984), 모든 정보를 더하는 것(Podell & Amster, 1966), 평균화 함수를 통해 관찰된 정보를 종합하는 것(Anderson, 1965b; Hendrick, 1968) 등이 있으며 이 전략들의 사용은 암묵적인 것으로 나타난다(Fang et al., 2018).

앞서 언급한 전략들과 더불어 통계적 정보(statistical information) 또한 비일관적인 사회적 정보 처리에 있어 고려될 수 있다. 비일관성을 처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사건 간의 상대적인 발생 확률, 즉 발생 확률이 낮은 희귀 사건(낮은 빈도 사건)과 발생 확률이 높은 일반적인 사건(높은 빈도 사건)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사람이 사건의 상대적 발생 확률에 민감하며 통계적 정보를 사용해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처리함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특정 사회적 그룹 내에서 어떠한 태도 및 행동이 일반적이고 또 일반적이지 않은지를 구분하고 예측한다(Nisbett & Kunda, 1985).

선호도 추적 및 추론에도 통계적 정보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 희박한 선호도 효과(rare preference effect)에 대해 알아본 연구 결과 사람들은 통계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과 희박한 선호를 공유하는 사람의 수를 확인한 후 자신이 함께 상호작용하고 싶은 사람 및 그룹을 정하고, 더 나아가 통계적 정보를 바탕으로 타인이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그룹, 즉 제 3자의 선호도도 추론한다(Vélez, Bridgers, & Gweon, 2019). 또한 한 개인이 특정 선호도를 보일 때 사회적 그룹 내 선호도가 어떻게 분포되어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개인이 어떤 그룹에 속할지를 추론한다(Vélez,

2020). 이러한 결과들은 인간의 사회인지 시스템이 통계적 규칙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각단서 추적(Druker & Anderson, 2010; Jiang, Swallow, & Rosenbaum, 2013), 언어 학습(Pelucchi, Hay, & Saffran, 2009; Poepsel & Weiss, 2016; Saffran, Aslin, & Newport, 1996), 행동 예측(Palaus, Hunnius, van Wijngaarden, Vries, van Rooij, & Bekkering, 2011) 및 사회적 평가(Nisbett & Kunda, 1985; Vélez, 2020; Vélez et al., 2019)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계적 정보가 사용된다는 결과는 인간이 통계적 정보에 매우 민감하며, 정보처리 과정에 있어 통계적 정보가 기본 가용 정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일관적으로 친사회적인 행위자의 도덕적 평가 또한 통계적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일관적인 친사회적 행위자에 대한 사회-도덕적 평가, 그리고 그 평가에 있어 통계적 정보의 사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성인 연구의 시발점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에게 친사회적인 행동과 반사회적인 행동의 비율이 상이한 행위자들을 제시한 후 각 행위자에 대해 어떠한 도덕적 평가와 일반적인 선호도(예, xx를 얼마나 선호하십니까?)를 보이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탐색을 통해 성인이 타인의 비일관적인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 시 어떠한 정보에 더 의지하는지를 밝힘으로써 인간의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비일관적이지만

도움 행동이 우세한 행위자와 비일관적이지만 도움을 주지 않는 행동이 우세한 행위자 중 사람이 어떤 행위자를 더 도덕적이라 평가하며 선호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1은 사람들이 통계적 정보를 바탕으로 행위자를 평가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따라서 친사회적 행동 비율이 더 높은 행위자를 더 도덕적이라 평가하고 선호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연구 2는 연구 1의 결과가 단순히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유형에 초점을 맞춰 행위자를 평가해 나타난 결과가 아님을 확인하려 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 1에서 참가자들은 친사회적 행위의 상세한 비율(예, 66.67% 친사회적 대 33.33% 친사회적)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전체 행위 중 자주 나타나는 행위의 유형이 무엇인가(예, 친사회 대 반사회)를 바탕으로 행위자를 평가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일관적인 행위자와 비일관적인 행위자를 제시함으로써 사람이 세부적 통계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하는지 혹은 단순히 가장 자주 나타나는 행동의 유형에 근거하여 도덕성을 평가하고 선호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참가자들이 단순히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유형에 초점을 맞춰 행위자를 평가한다면 일관적으로 친사회적(반사회적)인 행위자와 비일관적으로 친사회적(반사회적)인 행위자 간 유의미한 도덕성 및 선호도 차이가 없을 것이고, 통계적 정보에 근거하여 행위자를 판단한다면 일관적인 행위자와 비일관적인 행위자에 대한 사회-도덕적 평가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연구 3은 비일관적인 행위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 사람이 행위의 비율 정보 뿐만 아니라

행위의 빈도 정보도 사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만약 행위의 비율은 동일하게 2:1이지만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행위의 수가 달라질 경우 참가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예를 들어, A가 두 번 도움을 주고 한 번 도움을 주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A가 한 번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 실수 또는 다른 상황적인 이유로 인해 도와주지 못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반사회적인 행동의 비율은 동일하더라도 절대적인 빈도가 늘어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여섯 번 도움을 주고 세 번 도움을 주지 않는 B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B의 경우 A와 동일하게 친사회 및 반사회적 행위의 비율이 2:1이지만 도움을 주지 않는 빈도가 더 높기 때문에 고의로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라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3은 비율은 동일하지만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행위의 수를 달리 제시함으로써 비일관적인 친사회적 행위자의 사회-도덕적 평가 시 사람이 어떠한 정보를 더 우선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만약 참가자들이 행위의 비율 정보를 바탕으로 비일관적인 행위자를 판단한다면 두 개의 친사회적 행위(또는 반사회적 행위)와 한 개의 반사회적 행위(또는 친사회적 행위)를 한 A행위자(2:1 비율)와 여섯 개의 친사회적 행위(또는 반사회적 행위)와 세 개의 반사회적 행위(또는 친사회적 행위)를 한 B행위자(2:1 비율) 간 도덕성 및 선호도 평가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행위의 빈도 정보를 바탕으로 비일관적인 행위자를 평가한다면 A와 B에 대한 사회-도덕적 평가 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근거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행위자를 더 도덕적이라 평가하고 선호하는가?

1-1. 비일관적이지만 친사회적 행동을 더 자주 보이는 사람과 비일관적이지만 반사회적 행동을 더 자주 보이는 사람에 대한 도덕적 평가 및 선호도는 어떠한가? (연구 1)

1-2. 일관적으로 친사회적(반사회적)인 사람과 비일관적으로 친사회적(반사회적)인 사람에 대한 평가 시 사람들은 단순히 가장 전형적인 행동유형에 근거하여 사람을 평가하는가 아니면 통계적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을 평가하는가? (연구 2)

연구문제 2. 사람들은 비일관적인 행위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 행위의 비율 정보를 사용하는가 아니면 행위의 빈도 정보를 사용하는가? (연구 3)

II. 연구방법

1. 연구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연구 1은 서울에 소재한 OO대학교 심리학 수업을 수강하는 학부생 중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한 42명($M = 22.93$ 세, $SD = 2.45$ 세, $Range = 19-29$ 세, 남자 21명, 여자 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성인 남녀로 연구에 참여하기 전 서면 동의를 하였고, 보상으로 심리학 수업 이수를 위한 크레딧을 부여받았다. 본 연구의 절차는 OO대학교의 심리학과 연구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승인되었다.

참가자들은 서울 소재 OO대학교 실험 참여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여에 앞서 참가자들은 화면에 제시되는 연구 목적, 예상 소요 시간, 연구 참가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읽었으며, 연구는 참여에 동의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OO대학교 내 한 연구실의 조용한 방에서 진행되었으며, 평균 소요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검사단계에서 참가자들에게는 12개의 검사 시행과 12개의 가짜시행(filler trial)이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각 시행은 종이 설문지의 한 면에 제시되었다. 검사시행에서 참가자들은 제시된 이야기를 읽은 후 행위자의 도덕성과 행위자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도를 차례로 평가하였다. 가짜시행의 경우 참가자들은 제시된 이야기를 읽은 후 행위자의 기분 또는 매력도,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도를 평가하였다.

검사단계를 마친 다음 참가자들은 성별 및 연령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질문에 답하였다. 실험 종료 후 실험에 대한 사후 설명을 하였고, 참가자들에게 수업 이수를 위한 크레딧을 보상으로 지급하였다.

측정도구

본 실험에서 사용된 행위들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옆에 있는 친구를 도와주

는 친사회적 행위와 도움을 주지 않는 반사회적 행위들을 묘사하였다. 본 실험에 앞서 시나리오에 사용될 각 행위가 친사회 및 반사회적 행위들로 구분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검사(pilot test)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에는 서울에 소재한 OO대학교 학부생 12명($M = 22$ 세, $SD = 1.9$ 세, $Range = 19-27$ 세, 남자 6명, 여자 6명)이 참가였다. 참가자들은 제시된 36개의 행위를(친사회적 행위 18개, 반사회적 행위 18개) 7점 척도(1 = 비도덕적, 7 = 도덕적)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각 행위가 친사회적($M = 5.51$, $SD = 0.20$, $Range = 5.25 - 5.92$, Cronbach's $\alpha = .84$) 또는 반사회적($M = 2.64$, $SD = 0.21$, $Range = 2.17 - 2.92$, Cronbach's $\alpha = .95$) 행위로 명확하게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12개의 검사시행과 12개의 가짜시행으로 구성되었고, 24개의 시행은 각 참가자에게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각 검사시행에서 제시된 시나리오는 예비검사를 통해 확인된 36개의 행위(친사회적 행위 18개, 반사회적 행위 18개)를 무선적으로 조합해 만들어졌으며, 행위자가 하루 동안 보인 친사회 및 반사회적 행위들을 묘사하였다. 가짜시행의 경우 도덕성과는 관련이 없는 세 개의 행위들을 묘사하였다.

열두 개의 검사시행 중 여섯 개 시행은 친사회 우세시행 그리고 나머지 여섯 개 시행은 반사회 우세시행이었다. 친사회 우세시행은 행위자가 하루에 한 세 개의 행위 중 두 개의 행위가 친사회적이고 한 개의 행위가 반사회적인 시행, 반대로 반사회 우세시행은 행위자가 하루에 한 세 개의 행위 중 두 개의 행위가 반사회적이고 한 개의 행위가 친사회적인

시행이었다. 각 시행에서 행위의 순서는 역균형화 되어 제시되었다(예, 친사회-우세 시행: 친사회-친사회-반사회, 친사회-반사회-친사회, 반사회-친사회-친사회). 또한 제시된 이야기의 행위자 중 받은 남성 그리고 나머지 받은 여성이었으며, 행위자와 상대방(도움을 받는 또는 받지 못하는 사람)의 성별은 동일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친사회 우세시행과 반사회 우세시행의 예는 다음과 같다.

친사회 우세시행. 다음은 현우가 오늘 하루 한 행동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종혁이는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더러워서 청소할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현우는 종혁이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종혁이는 혼자서 청소를 다 해야 했습니다.

세훈이는 액자를 걸기 위해 못을 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을 박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현우는 세훈이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현우는 세훈이에게 못을 박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종현이는 상자를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자가 너무 무거워서 들고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현우는 종현이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현우는 종현이의 상자를 들어주었습니다.

① 현우가 얼마나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까?

② 현우를 얼마나 선호하십니까?

반사회 우세시행. 다음은 주현이가 오늘 하루 한 행동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소영이는 책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주현이는 소영이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소영이는 혼자서 책을 다 정리해야 했습니다.

민경이는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게임이라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주현이는 민경이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민경이는 혼자서 게임 규칙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현아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색연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주현이는 현아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주현이는 현아가 필요한 색연필을 가져다주었습니다.

① 주현이가 얼마나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② 주현이를 얼마나 선호하십니까?

참가자들은 제시된 이야기를 읽은 후 7점 척도로 (1) 행위자의 도덕성(1 = 전혀 착하지 않음, 7 = 매우 착함)과 (2) 행위자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도(1 = 전혀 선호하지 않음, 7 =

매우 선호함)를 차례로 평가하였다. 가짜시행의 경우 참가자들은 제시된 이야기를 읽은 후 7점 척도로 행위자의 기분 또는 매력도,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도를 평가하였다.

자료분석

본 자료는 JASP 0.12.2(JASP Team, 2020)을 사용해 분석되었다. 가짜시행을 제외한 12개의 검사시행에 대한 도덕적 평가 문항과 선호도 문항의 답변에 대해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2. 연구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연구 2는 서울에 소재한 OO대학교 심리학 수업을 수강하는 학부생 중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한 24명($M = 21.5$ 세, $SD = 2.11$ 세, $Range = 19-26$ 세, 남자 7명, 여자 1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성인 남녀로 연구에 참여하기 전 서면 동의를 하였고, 보상으로 심리학 수업 이수를 위한 크레딧을 부여받았다. 본 연구의 절차는 OO대학교의 심리학과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승인되었다.

참가자들은 서울 소재 OO대학교 실험 참여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 실험에 참여하였고,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을 사용해 응답하였다. 실험 참여에 앞서 참가자들은 화면에 제시되는 연구 목적, 예상 소요 시간, 연구 참가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읽었으며, 연구는 참여에 동의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평

균 소요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연구 2는 2(행위의 유형: 친사회, 반사회) $\times$ 2(행위의 일관성: 일관적, 비일관적) 혼합 설계로 진행되었고, 참가자 중 반은 친사회 행위 조건에 그리고 나머지 반은 반사회 행위 조건에 할당되었다. 검사단계에서 참가자들에게 12개의 검사시행과 12개의 가짜시행이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때 한 화면에는 하나의 시행만이 제시되었다. 검사시행에서 참가자들은 제시된 이야기를 읽은 후 행위자의 도덕성과 행위자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도를 차례로 평가하였다. 가짜시행의 경우 참가자들은 제시된 이야기를 읽은 후 행위자의 기분 또는 매력도,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도를 평가하였다.

검사단계를 마친 다음 참가자들은 성별 및 연령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질문에 답하였다. 실험 종료 후 실험에 대한 사후 설명이 화면에 제시되었고, 참가자들에게 수업 이수를 위한 크레딧을 보상으로 지급하였다.

측정도구

연구 1과 동일하게 각 시나리오에 사용된 행위들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옆에 있는 친구를 도와주는 친사회적 행위와 도움을 주지 않는 반사회적 행위들을 묘사하였다. 본 실험에 앞서, 시나리오에 사용될 각 행위가 친사회 및 반사회적 행위들로 구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에 소재한 OO대학교 학부생 12명($M = 19.92$ 세, $SD = 0.9$ 세, $Range = 19-21$ 세, 남자 6명, 여자 6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제시된 60개의 행위를(친사회적 행위 30개, 반사회적 행

위 30개) 7점 척도(1 = 비도덕적, 7 = 도덕적)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각 시나리오에 기술된 행위들이 친사회적($M = 5.60$, $SD = 0.16$, $Range = 5.42 - 5.83$, $Cronbach's \alpha = .99$) 또는 반사회적($M = 2.94$, $SD = 0.18$, $Range = 2.5 - 3.17$, $Cronbach's \alpha = .92$) 행위로 명확하게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연구 2의 각 시행은 예비검사를 통해 확인된 60개 행위를 무선적으로 조합해 만들어졌다. 참가자들에게는 12개의 검사시행과 12개의 가짜시행, 총 24개의 시행이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친사회 행위 조건의 경우 12개의 검사시행 중 여섯 개 시행은 일관적인 친사회적 행위자 시행, 그리고 나머지 여섯 개 시행은 비일관적인 친사회적 행위자 시행이었다. 이때 일관적인 행위자는 하루에 한 세 개의 행위가 모두 친사회적이었고, 비일관적인 행위자는 두 개의 친사회적 행위와 한 개의 반사회적인 행위를 보였다. 각 행위는 역 균형화되어 제시되었다. 또한 제시된 이야기의 행위자 중 반은 남성 그리고 나머지 반은 여성이었으며,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별은 동일하였다.

참가자들은 제시된 이야기를 읽은 후 7점 척도로 (1) 행위자의 도덕성(1 = 전혀 착하지 않음, 7 = 매우 착함)과 (2) 행위자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도(1 = 전혀 선호하지 않음, 7 = 매우 선호함)를 차례로 평가하였다. 가짜시행의 경우 참가자들은 제시된 이야기를 읽은 후 7점 척도로 행위자의 기분 또는 매력도,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도를 평가하였다.

반사회 행위 조건은 친사회 행위 조건과 동

일하나 일관적인 행위자가 하루 동안 한 세 행위는 모두 반사회적이었고, 비일관적인 행위자는 두 개의 반사회적 행위와 한 개의 친사회적 행위를 보였다.

자료분석

본 자료는 JASP 0.12.2(JASP Team, 2020)을 사용해 분석되었다. 가짜시행을 제외한 12개의 검사시행에 대한 도덕적 평가 문항과 선호도 문항의 답변에 대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3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연구 3은 서울에 소재한 OO대학교 심리학 수업을 수강하는 학부생 중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한 42명($M = 21.64$ 세, $SD = 20.3$ 세, $Range = 19-28$ 세, 남자 14명, 여자 2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험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성인 남녀로 연구에 참여하기 전 서면 동의를 하였고, 보상으로 심리학 수업 이수를 위한 크레딧을 부여 받았다. 본 연구의 절차는 OO대학교의 심리학과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승인되었다.

연구 3은 연구 2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검사단계에서 참가자들에게는 여섯 개의 검사시행과 여섯 개의 가짜시행이 무선적으로 제시되었고, 평균 소요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측정도구

각 시나리오는 옆에 있는 친구를 도와주는 친사회적 행위와 도움을 주지 않는 반사회적

행위들을 묘사하였다. 연구 3에서 사용한 행위들은 연구 2에서 검증된 친사회 행위 27개, 그리고 반사회 행위 27개를 사용하였다. 각 시나리오에는 54개의 행위를 무선적으로 조합해 만들어졌다.

연구 3은 여섯 개의 검사시행과 여섯 개의 가짜시행으로 구성되었고 12개의 시행은 각 참가자에게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여섯 개의 검사시행 중 세 시행은 친사회 우세 시행 그리고 나머지 세 시행은 반사회 우세 시행이었다. 친사회 우세 시행은 행위자가 하루에 한 아홉 개의 행위 중 여섯 개의 행위가 친사회적이고 세 개의 행위가 반사회적인 시행, 반대로 반사회 우세 시행은 행위자가 하루에 한 아홉 개의 행위 중 여섯 개의 행위가 반사회적이고 세 개의 행위가 친사회적인 시행이었다. 각 시행에서 행위의 순서는 역 균형화 되어 제시되었다. 제시된 이야기의 행위자 중 받은 남성 그리고 나머지 받은 여성이었으며,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별은 동일하였다.

검사시행에서 참가자들은 제시된 이야기를 읽은 후 7점 척도로 (1) 행위자의 도덕성(1 = 전혀 착하지 않음, 7 = 매우 착함)과 (2) 행위자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도(1 = 전혀 선호하지 않음, 7 = 매우 선호함)를 차례로 평가하였다. 가짜시행의 경우 참가자들은 제시된 이야기를 읽은 후 7점 척도로 행위자의 기분 또는 매력도,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도를 평가하였다.

자료분석

본 자료는 JASP 0.12.2(JASP Team, 2020)을 사용해 분석되었다. 가짜시행을 제외한 여섯

개의 검사시행에 대한 도덕적 평가 문항과 선호도 문항의 답변에 대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연구결과 1: 비밀관적인 친사회적 행위자와 비밀관적인 반사회적 행위자에 대한 사회-도덕적 평가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

행위자의 도덕성 문항에 대한 예비분석(preliminary analysis) 결과 성별의 주효과 및 성별과 우세 조건(친사회 우세 혹은 반사회 우세 조건)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F(1, 40) < 2.34, p > .13$).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성별 요인이 제외되었다.

그림 1a는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의 평균 점수를 보여주며, 이 자료는 우세 조건(친사회 우세 대 반사회 우세)을 피험자 내 변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조건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1, 41) = 200.32, p < .001, \eta_p^2 = .83$). 참가자들은 친사회 우세 행위자($M = 4.87, SD = 0.60$)를 반사회 우세 행위자($M = 3.51, SD = 0.71$)보다 더 도덕적이라 평가하였다. 즉, 비밀관적이지만 도움을 더 많이 주는 사람이 도움을 덜 주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라 평가된다는 것이다.

행위자에 대한 선호도

행위자에 대한 선호도 문항의 예비분석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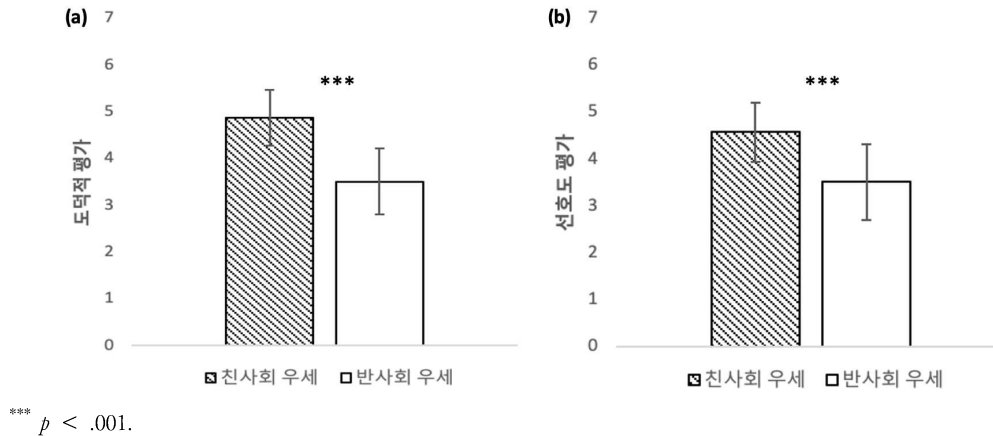


그림 1. (a)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 평균 및 표준편차. (b) 행위자에 대한 선호도 평균 및 표준편차

과 성별의 주효과 및 성별과 우세 조건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F(1, 40) < 2.32, p > .14$). 따라서 이후 분석에는 성별 요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림 1b는 행위자에 대한 선호도의 평균을 보여주며, 이 자료는 우세 조건을 피험자 내 변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우세 조건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1, 41) = 120.68, p < .001, \eta_p^2 = .75$). 참가자들은 친사회 우세 행위자($M = 4.58, SD = 0.63$)를 반사회 우세 행위자($M = 3.47, SD = 0.80$)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일관적이지만 도움을 덜 주는 사람보다 도움을 더 주는 사람이 더 선호됨을 보여준다.

2. 연구결과 2: 일관적인 친사회적(반사회적) 행위자와 비일관적인 친사회적(반사회적) 행위자에 대한 사회-도덕적 평가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

행위자의 도덕성 문항에 대한 예비분석 결과 성별의 주효과와 성별, 행위의 유형 그리고 행위의 일관성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F(1, 20) < 1.11, p > .31$).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성별 요인이 제외되었다.

그림 2는 조건별로 주인공에 대한 도덕적 평가의 평균 점수를 보여주며, 이 측정치에 대해 행위의 유형(친사회 대 반사회)을 피험자 간 변인 그리고 행위의 일관성(일관적 대 비일관적)을 피험자 내 변인으로 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행위의 일관성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F(1, 22) = .57, p > .05, \eta_p^2 = .03$) 행위의 유형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다($F(1, 22) = 111.76, p < .001, \eta_p^2 = .84$). 참가자들은 반사회 행위($M = 3.10, SD = 0.91$)보다 친사회 행위($M = 5.61, SD = 0.90$)를 더 도덕적이라 평가하였다.

또한 행위의 유형과 행위의 일관성 간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F(1, 22) = 108.41, p < .001, \eta_p^2 = .83$). Tukey의 사후 분석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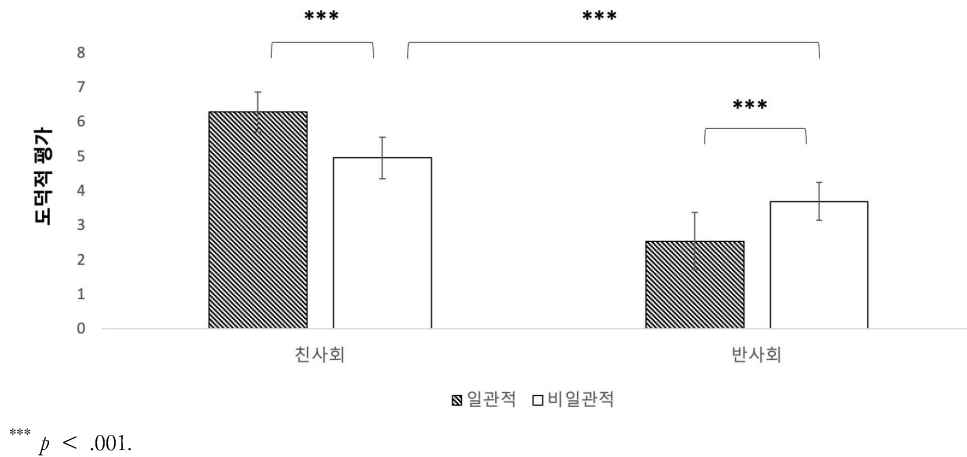


그림 2. 연구 2에서의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 평균 및 표준편차

과 친사회 행위 유형의 참가자들은 비일관적인 행위자($M = 4.94$, $SD = 0.60$)보다 일관적인 행위자($M = 6.29$, $SD = 0.58$)를 더 도덕적이라 평가하였다($t = 7.90$, $p < .001$). 반면 반사회 행위 유형의 참가자들은 일관적인 행위자($M = 2.50$, $SD = 0.60$)보다 비일관적인 행위자($M = 3.68$, $SD = 0.55$)를 더 도덕적이라 평가하였다($t = 6.83$, $p < .001$). 더 나아가 참가자들은 비일관적인 반사회적 행위자보다 비일관적인 친사회적 행위자를 더 도덕적이라 평가하였다($t = 4.76$, $p < .001$). 이러한 결과는 확률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인 사람이 더 도덕적으로 평가됨을 보여준다.

행위자에 대한 선호도

행위자의 선호도 문항에 대한 예비분석 결과 성별의 주효과 및 성별, 행위의 유형 그리고 행위의 일관성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F(1, 20) < 2.21$, $p > .15$).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성별 요인이 제외되었다.

종속 변인인 행위자에 대한 선호도(그림 3)에 대해 행위의 유형을 피험자 간 변인 그리고 행위의 일관성을 피험자 내 변인으로 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행위의 일관성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F(1, 22) = .10$, $p > .05$) 행위의 유형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다($F(1, 22) = 102.07$, $p < .001$, $\eta_p^2 = .82$). 참가자들은 반사회 행위($M = 3.09$, $SD = .88$)보다 친사회 행위($M = 5.41$, $SD = .89$)를 더 선호하였다.

또한 행위의 유형과 행위의 일관성 간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F(1, 22) = 89.34$, $p < .001$, $\eta_p^2 = .80$). Tukey의 사후 분석 결과 친사회 행위 유형의 참가자들은 비일관적인 행위자($M = 4.78$, $SD = .59$)보다 일관적인 행위자($M = 6.04$, $SD = .68$)를 더 선호하였다($t = 6.91$, $p < .001$). 반면 반사회 행위 유형의 참가자들은 일관적인 행위자($M = 2.50$, $SD = .60$)보다 비일관적인 행위자($M = 3.68$, $S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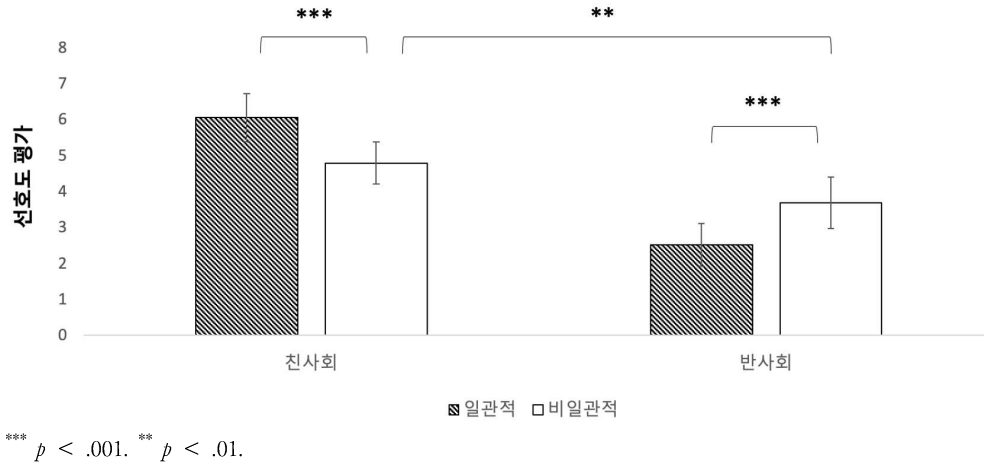


그림 3. 연구 2에서의 행위자에 대한 선호도 및 표준편차

.72)를 더 선호하였다($t = 6.46, p < .001$). 그리고 비일관적인 행위자 중에서는 비일관적인 친사회적 행위자를 더 선호하였다($t = 4.16, p < .01$). 즉, 확률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인 사람이 더 선호된다는 것이다.

3. 연구결과 3: 비일관적인 친사회적 행위자에 대한 사회-도덕적 평가 시 비율 및 빈도 정보의 사용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 및 선호도

도덕적 평가. 행위자의 도덕성 문항에 대한 예비분석 결과 성별의 주효과 및 성별과 우세 조건(친사회 우세 혹은 반사회 우세 조건)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F(1, 40) < 0.45, p > .51$).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성별 요인이 제외되었다. 주인공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우세 조건을 피험자 내 변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조건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1,$

$41) = 112.98, p < .001, \eta_p^2 = .73$). 참가자들은 친사회 우세 행위자($M = 4.96, SD = 0.71$)를 반사회 우세 행위자($M = 3.64, SD = 0.81$)보다 더 도덕적이라 평가하였다.

선호도. 행위자의 선호도 문항에 대한 예비분석 결과 성별의 주효과 및 성별과 우세 조건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F(1, 40) < 0.33, p > .86$). 따라서 이후 분석에는 성별 요인이 제외되었다. 주인공에 대한 선호도는 우세 조건을 피험자 내 변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우세 조건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1, 41) = 79.74, p < .001, \eta_p^2 = .66$). 참가자들은 친사회 우세 행위자($M = 4.84, SD = 0.72$)를 반사회 우세 행위자($M = 3.59, SD = 0.78$)보다 더 선호하였다.

연구 1과의 비교 분석

표 1은 연구 1과 3에서의 도덕성 평가 및

표 1. 비일관적인 행위자들에 대한 평균 도덕적 평가 및 선호도

	도덕적 평가		선호도	
	친사회 우세	반사회 우세	친사회 우세	반사회 우세
	<i>M (SD)</i>	<i>M (SD)</i>	<i>M (SD)</i>	<i>M (SD)</i>
연구 1 (2대 1)	4.87 (.60)	3.51 (.71)	4.58 (.63)	3.47 (.80)
연구 3 (6대 3)	4.96 (.71)	3.64 (.81)	4.84 (.72)	3.59 (.78)
전체	4.91 (.65)	3.57 (.76)	4.71 (.68)	3.53 (.79)

선호도 점수 평균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행위의 수에 따른 도덕적 평가의 유사성 또는 차이점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연구 1과 3의 결과를 2(행위의 수: 2대 1/6대 3) x 2(우세 조건: 친사회 우세/반사회 우세)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행위의 수의 주효과와 행위의 수와 우세 조건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F(1, 82) < 0.70, p > .41$) 우세 조건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다($F(1, 82) = 291.37, p < .001, \eta_p^2 = .78$). 이는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행위의 수와는 무관하게 반사회 우세 행위자($M = 3.57, SD = 0.76$)보다 친사회 우세 행위자($M = 4.91, SD = 0.65$)가 더 도덕적이라 평가됨을 보여준다.

연구 1과 3의 선호도 점수도 도덕적 평가 점수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행위의 수의 주효과 및 행위의 수와 우세 조건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고($F(1, 82) < 1.96, p > .17$), 우세 조건의 주효과만이 유의미하였다($F(1, 82) = 186.60, p < .001, \eta_p^2 = .70$). 이는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행위의 수와는 무관하게 반사회 우세 행위자($M = 3.53, SD = 0.79$)보다 친사회 우세 행위자($M = 4.71, SD = 0.68$)가 더 선호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비일관적인 친사회적 행위자에 대한 사회-도덕적 평가가 행위의 빈도 보다는 행위의 비율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비일관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행위자에 대한 사회-도덕적 평가와 그 평가에 있어 통계적 정보의 사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 1은 비일관적인 친사회적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일반적인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이야기의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서 참가자들은 비일관적이지만 도움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사람(친사회 행위자)을 비일관적이지만 도움을 주지 않은 행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반사회 행위자)보다 더 도덕적이라 평가하였다. 마찬가지로 선호도 평가에서도 비일관적이지만 친사회 행동이 우세한 사람을 더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일관적인 행동을 보이더라도 친사회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됨을 보여주며, 비일관적인 행위자의 사회-도덕적 평가에 있어 통계적 정

보가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연구 1의 결과는 참가자들이 통계적 정보를 바탕으로 행위자의 사회도덕성을 평가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단순히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유형에 초점을 맞춰 행위자를 평가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연구 2는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친사회 행위 유형의 참가자들은 비일관적으로 친사회적인 행위자보다 일관적으로 친사회적인 행위자를 더 도덕적이라 평가하고 선호하였고, 반대로 반사회 행위 유형의 참가자들은 일관적으로 반사회적인 행위자보다 비일관적으로 반사회적인 행위자를 더 도덕적이라 평가하고 선호하였다. 더 나아가 참가자들은 비일관적으로 반사회적인 행위자보다 비일관적으로 친사회적인 행위자를 더 도덕적이라 평가하고 선호하였다. 즉, 참가자들은 행위자가 전형적으로 보이는 행위가 무엇인가(예, 친사회 대 반사회)를 고려하기 보다는 행위자가 실시한 총 행위 중 친사회적 행위의 비율이 어떠한가를 고려하여(예, 100% 착함, 66.67% 착함, 33.33% 착함 또는 아예 착하지 않음) 행위자를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단순히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유형에 근거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의 사회도덕성을 평가함을 보여준다.

연구 3은 비일관적인 행위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 사람들이 행위의 비율 정보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행위의 빈도 정보를 사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비율은 2대 1로 동일하지만 시나리오를 구

성하는 행위의 수가 다른 2대 1과 6대 3 조건 간의 도덕적 평가 및 선호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단순히 확률적으로 도움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행위자를 더 도덕적이라 평가하고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일관적인 친사회적 행위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 행위의 빈도 보다는 행위의 비율 정보가 우선시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사회-도덕적 평가에서 빈도 보다 비율 정보가 우선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는 반대로 빈도는 고정되어 있으나 비율이 변화하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행위의 비율은 고정하고 행위의 빈도만 변화시킨 조건만을 확인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각 영역(Druker & Anderson, 2010; Jiang et al., 2013), 언어 영역(Pelucchi et al., 2009; Poepsel & Weiss, 2016; Saffran et al., 1996), 인지 영역(Palaus et al., 2011)과 더불어 도덕적 평가에서도 통계적 정보가 사용됨을 보여준다. 즉, 사람은 선호도(Vélez et al., 2019), 멤버십 추론(Vélez, 2020) 등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통계적 정보를 사용하며, 통계적 정보를 바탕으로 추상적이고 관찰할 수 없는 특성(예, 선호, 태도)을 추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인간의 정보처리 시스템이 통계적 규칙에 매우 민감하며, 정보처리 과정 가운데 통계적 정보가 부호화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Hasher & Zacks, 1984).

향후 연구에서는 비일관적인 행위자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구

체적 요인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이영은, 송현주, 2014; Hamlin, 2013a, 2013b; Lee et al., 2015; Moran et al., 2011)에서는 사람이 타인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행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행동의 기저 의도도 고려함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행위자가 비일관적으로 행동하게 된 의도(예, 도와주려 했으나 도움이 되지 못한 경우 또는 고의로 도움을 주지 않은 경우)나 상황적 이유(예, 손이 부족해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 등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비일관적 행위자의 의도와 상황적 제약이 행위자의 도덕성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위자가 비일관적으로 행동하게 된 의도 및 상황적 제약 정보가 제시될 경우 통계적 정보의 사용에 변화가 나타나지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사람들은 비일관적으로 친사회적인 행위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 행위의 빈도 정보보다는 비율 정보에 근거해 행위자들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와 달리 행위자가 비일관적으로 행동하게 된 이유를 제시할 경우 비율보다 빈도 정보가 더 우선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두 번 도움을 주고 한 번 도움을 주지 않는 A(2대 1)와 여섯 번 도움을 주고 세 번 도움을 주지 않는 B(6대 3)가 있다. 그리고 각 행위자가 도움을 주지 않을 때는 고의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예, ‘옆에 있던 주현이는 일부러 소영이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한 번 도와주지 않은 것은 그냥 넘길 수 있지만, 여

러 번 의도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은 매우 나쁘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친·반사회적 행위의 비율은 동일하지만 고의로 도움을 주지 않은 행위의 빈도가 더 높은 B가 A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질문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선호도에 변화가 나타나지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일관적인 행위자에 대한 참가자의 일반적인 선호도(예, xx를 얼마나 선호하십니까?)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와 달리 구체적인 맥락을 제시할 경우 참가자들의 선호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예를 들어, 단순히 친해지기 위한 동기를 바탕으로 한 선호도와 협력/영향력 행사 등의 동기를 바탕으로 한 선호도(예, oo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파트너로써 xx를 얼마나 선호하십니까?)는 의미상 다를 수 있다. 협력해야 하는 상황은 파트너의 행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친해지기 위한 때보다 비일관적인 행위자를 덜 선호할 수 있다. 추후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해봄으로써 비일관적인 행위자의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맥락의 효과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해볼 점은, 일관적인 행위자에 대한 사회-도덕적 평가 능력은 생후 초기부터 나타나 성인기까지 매우 안정적으로 이어지지만(Hamlin, 2013b; Kuhlmeier et al., 2003), 비일관적인 행위자에 대한 사회-도덕적 평가 능력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적 정보를 바탕으로 비일관적인 친사회적 행위자에 대한 사회-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었던 본 연구의 참가자들과는 달리 Steckler

와 동료들(2017)의 영아들은 그러지 못하였다. 한 가지 가능성은 비일관적인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 능력이 영아기 이후 발달한다는 것이다. 추후 연구는 다양한 연령대(예,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1) 비일관적인 친사회적 행위자에 대한 사회-도덕적 평가 능력이 언제 발달하기 시작하며, (2) 어떠한 발달적 궤도를 그리는지, 그리고 (3) 다른 연령대에서는 비일관적인 친사회적 행위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 비율과 빈도 정보 중 어떤 정보가 우선시 되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도덕성 발달에는 개인의 발달과정이 영향을 미친다(방은령, 1995).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사회-도덕적 평가 시 통계적 정보의 활용에 있어 참가자의 대학, 전공, 개인의 과거와 현재 삶의 경험 영향 등의 개인차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는 모두 20대 대학생이었다. 성인기 내에서도 그 단계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Margoni, Geipel, Hadjichristidis & Surian, 2019)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비일관적인 도덕 행위를 보이는 행위자에 대한 전 연령대의 성인들 평가 패턴을 알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은 추후 성인 초기, 중기 그리고 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성인기 내에서 비일관적인 행위자의 사회-도덕적 평가의 발달적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비일관적인 친사회적 행위자의 사회-도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통계적 정보

가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통계적 정보 중 비일관성을 처리하는 데 있어 빈도 정보보다는 비율 정보가 우선시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성인들이 타인의 비일관적인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 시 어떠한 정보에 더 의지하는지를 밝힘으로써 인간의 대인관계 패턴을 이해함에 있어 기초지식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인지 처리 과정에서 확률적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에 대한 향후 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박채린, 송현주 (2019). 도움 행동에 대한 영아의 사회적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2) 65-77.
<http://doi.org/10.35574/KJDP.2019.06.32.2.65>
- 방은령 (1995). 도덕성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1): 대학생의 자기보고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1), 117-144.
- 이영은, 송현주 (2014). 영아의 도움 행동과 방해 행동의 의도 이해. *인지과학*, 25(2), 135-157.
<http://doi.org/10.19066/cogsci.2014.25.2.004>
- Anderson, N. H. (1965a). Primacy effects in personality impression formation using a generalized order effect paradig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1-9.
<http://doi.org/10.1037/h0021966>
- Anderson, N. H. (1965b). Averaging versus adding

- as a stimulus-combination rule i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70(4), 394-400.
<http://doi.org/10.1037/h0022280>
- Asch, S. E. (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3), 258-290.
<http://doi.org/10.1037/h0055756>
- Druker, M., & Anderson, B. (2010). Spatial probability aids visual stimulus discrimination.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 4(63), 1-10.
<http://doi.org/10.3389/fnhum.2010.00063>
- Erber, R., & Fiske, S. T. (1984). Outcome dependency and attention to inconsistent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4), 709-726.
<http://doi.org/10.1037/0022-3514.47.4.709>
- Fang, X., Van Kleef, G. A., & Sauter, D. A. (2018). Person perception from changing emotional expressions: Primacy, recency, or averaging effect?. *Cognition and Emotion*, 32(8), 1597-1610.
<http://doi.org/10.1080/02699931.2018.1432476>
- Fawcett, C., & Liszkowski, U. (2012). Infants anticipate others' social preference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1(3), 239-249.
<http://doi.org/10.1002/icd.739>
- Hamlin, J. K. (2013a). Moral judgment and action in preverbal infants and toddlers: Evidence for an innate moral cor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2(3), 186-193.
<http://doi.org/10.1177/0963721412470687>
- Hamlin, J. K. (2013b). Failed attempts to help and harm: Intention versus outcome in preverbal infants' social evaluations. *Cognition*, 128(3), 451-474.
<http://doi.org/10.1016/j.cognition.2013.04.004>
- Hamlin, J. K., & Wynn, K. (2011). Young infants prefer prosocial to antisocial others. *Cognitive Development*, 26(1), 30-39.
<http://doi.org/10.1016/j.cogdev.2010.09.001>
- Hamlin, J. K., & Wynn, K. (2012). Who knows what's good to eat? Infants fail to match the food preferences of antisocial others. *Cognitive Development*, 27(3), 227-239.
<http://doi.org/10.1016/j.cogdev.2012.05.005>
- Hamlin, J. K., Wynn, K., & Bloom, P. (2007). Social evaluation by preverbal infants. *Nature*, 450, 557-559.
<http://doi.org/10.1038/nature06288>
- Hamlin, J. K., Wynn, K., & Bloom, P. (2010). Three-month-olds show a negativity bias in their social evaluations. *Developmental Science*, 13(6), 923-929.
<http://doi.org/10.1111/j.1467-7687.2010.00951.x>
- Hareli, S., David, S., & Hess, U. (2016). The role of emotion transition for the perception of social dominance and affiliation. *Cognition and Emotion*, 30(7), 1260-1270.
<http://doi.org/10.1080/02699931.2015.1056107>
- Hasher, L., & Zacks, R. T. (1984). Automatic processing of fundamental information: The case of frequency of occurrence. *American Psychologist*, 39(12), 1372-1388.
<http://doi.org/10.1037/0003-066X.39.12.1372>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 relations*. New York: Wiley.
- Hendrick, C. (1968). Averaging vs summation in impression formatio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27(3), 1295-1302.
<http://doi.org/10.2466/pms.1968.27.3f.1295>
- Hinten, A. E., Labuschagne, L. G., Boden, H., & Scarf, D. (2018). Preschool children and young adults' preferences and expectations for helpers and hinderer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7(4), e2093.
<http://doi.org/10.1002/icd.2093>
- JASP Team. (2020). JASP (Version 0.12.2) [Computer software]. Retrieved June 6, 2021, from <http://jasp-stats.org/download/>
- Jiang, Y. V., Swallow, K. M., & Rosenbaum, G. M. (2013). Guidance of spatial attention by incidental learning and endogenous cu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 39, 285-297.
<http://doi.org/10.1037/a0028022>
- Kuhlmeier, V., Wynn, K., & Bloom, P. (2003). Attribution of dispositional states by 12-month-olds. *Psychological Science*, 14(5), 402-408.
<http://doi.org/10.1111/1467-9280.01454>
- Lee, Y., Yun, J. E., Kim, E., & Song, H. (2015). The development of infants' sensitivity to behavioral intentions when inferring others' social preferences. *PLoS ONE*, 10(9), e0135588.
<http://doi.org/10.1371/journal.pone.0135588>
- Margoni, F., Geipel, J., Hadjichristidis, C., & Surian, L. (2019). The influence of agents' negligence in shaping younger and older adults' moral judgment. *Cognitive Development*, 49, 116-126.
<http://doi.org/10.1016/j.cogdev.2018.12.002>
- Moran, J. M., Young, L. L., Saxe, R., Lee, S. M., O'Young, D., Mavros, P. L., & Gabrieli, J. D. (2011). Impaired theory of mind for moral judgment in high-functioning autism.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8(7), 2688-2692.
<http://doi.org/10.1073/pnas.1011734108>
- Nisbett, R. E., & Kunda, Z. (1985). Perception of social distribu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2), 297-311.
<http://doi.org/10.1037/0022-3514.48.2.297>
- Palaus, M., Hunnius, S., van Wijnngaarden, C., Vries, S., van Rooij, I., & Bekkering, H. (2011). The role of frequency information and teleological reasoning in infants' and adults' action predi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7(4), 976-983.
<http://doi.org/10.1037/a0023785>
- Pelucchi, B., Hay, J. F., & Saffran, J. R. (2009). Statistical learning in natural language by 8-month-old infants. *Child Development*, 36(3), 674-685.
<http://doi.org/10.1111/j.1467-8624.2009.01290.x>
- Podell, J. E., & Amster, H. (1966). Evaluative concept of a person as a function of the number of stimulus trai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333-336.
<http://doi.org/10.1037/h0023706>
- Poepsel, T. J., & Weiss, D. J. (2016). The

- influence of bilingualism on statistical word learning. *Cognition*, 152, 9-19.
<http://doi.org/10.1016/j.cognition.2016.03.001>
- Saffran, J. R., Aslin, R. N., & Newport, E. L. (1996). Statistical learning by 8-month-old infants. *Science*, 274(5294), 1926-1928.
<http://doi.org/10.1126/science.274.5294.1926>
- Steckler, C. M., Woo, B. M., & Hamlin, J. K. (2017). The limits of early social evaluation: 9-month-olds fail to generate social evaluations of individuals who behave inconsistently. *Cognition*, 167, 255-265.
<http://doi.org/10.1016/j.cognition.2017.03.018>
- Vaporova, E., & Zmyj, N. (2020). Social evaluation and imitation of prosocial and antisocial agents in infants, children, and adults. *PLoS ONE*, 15(9), e0235595.
<http://doi.org/10.1371/journal.pone.0235595>
- Vélez, N. (2020). *Minds, groups, and populations: Harnessing the latent structure of social information*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CA.
- Vélez, N., Bridgers, S., & Gweon, H. (2019). The rare preference effect: Statistical information influences social affiliation judgments. *Cognition*, 192, 1-11.
<http://doi.org/10.1016/j.cognition.2019.06.006>

1 차원고접수 : 2021. 04. 17.
수정원고접수 : 2021. 05. 22.
최종게재결정 : 2021. 06. 27.

The Sociomoral Evaluation of Inconsistent Agents

Cha, Yomyong

Song, Hyun-joo

Dep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use of statistical information in the sociomoral evaluation of inconsistent agents. 108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across three studies. In Study 1, participants read stories about predominantly prosocial and predominantly antisocial agents and then rated the agent's morality and their preference toward the agent in a 7-point Likert scale. The repeated measures ANOVA analysis revealed that the participants preferred and evaluated the predominantly prosocial agent as more moral than the predominantly antisocial agent. In Study 2, the comparison between consistently prosocial (antisocial) and inconsistently prosocial (antisocial) agents revealed that the participants evaluate an agent's social-morality based on statistical information. Finally, Study 3 investigates whether frequency or ratio information is prioritized when evaluating an inconsistent agent. Participants preferred and evaluated the predominantly prosocial agent as more moral regardless of the number of actions that constituted each scenario (2:1 or 6:3).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ratio information is prioritized when evaluating the social-morality of an inconsistent agent. In summary, the current study suggests that inconsistent agents' sociomoral evaluation is based on statistical information.

Keywords: statistical information, sociomoral evaluation, inconsistency